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장수군연합회, 최용득 장수군수와 간담회 가져

- 장수군연합회(회장 이승철) 임원 및 읍면회장 20여명은, 8월 5일 최용득 장수군수와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
- 이날 장수군연합회 회원들은 △농약보조금 지원확대 △토마토 대형하우스 지원시 비닐 및 커튼 교체비용 보조금 확대 지원 △농산물 직거래 개선방안 △장수군 6차산업 활성화 방안 △2015년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전북도대회 유치 지원 △농업 품목별 단체 협의회 구성 △FTA기금 과수생산기반시설 사업비 현실단가 조성 및 보조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농기계 임대사업장 면단위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음
-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장수군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각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봉화군연합회, 고추종합처리장 부실 경영 관련 관내 조합장들로부터 사과문 작성 및 상벌처리 약속 받아

- 경북 봉화군 관내 농협 6곳이 공동 출자한 봉화고추종합처리장(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경영 의혹과 관련, 봉화군연합회(회장 박창욱)는 집회를 열고 시가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부실 운영 책임을 지고 조합장들이 사퇴하고 운영 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
- 이에 봉화군 관내 조합장 6명은 8월 6일 조합원들에게 사과문을 내고, 외부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상벌처리할 것을 약속했음
- 사과문은 ▷2012년 영양·청송 및 충북 괴산 등지의 고추를 상인을 통해 매입한 데 대해 죄송하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산물을 우선 매입해 손실을 만회토록 하겠음 ▷농협 이사회와 총회에서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과 검토를 거쳐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음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과 관련, 지역농협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생긴 규정 위반들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상벌처리토록 하겠음 ▷모든 결과는 조합장들의 공동책임이며, 조합원 및 문제를 제기한 봉화군연합회에도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봉화고추종합처리장(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9년 설립되었는데 매년 5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3월 출자에 참여했던 남안동농협이 탈퇴했음
- 봉화군연합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 부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던 농협 조합장들이 사과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되고 해서 다행임. 조만간 농협중앙회로부터 조합공동사업

법인 손실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강원도연합회, 11일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 예정

- 강원도연합회(회장 김익환)는 8월 11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도지사접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농정발전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강원도연합회에서는 김익환 도회장과 도임원들이 참석하고 도청에서는 최지사와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함
-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쌀수입 개방과 한·중FTA 등의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강원도농업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도 논의할 방침임

지방농정 관련 소식

○ 민선6기 청송군 주요 농정현안 토론회 열려

- 경북 청송군의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농민단체 대표 등이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청송군 민선 6기 농정 주요현안 토론회’를 8월 7일 개최
- 이번 토론회는 청송군 농민단체협의회와 청송사과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한동수 청송군수,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윤종도 경북도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음
- 이날 토론회는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약된 농정현안의 군정반영을 위한 토론회와 총체적인 청송농업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검토, 지역 농정의 올바른 정책방향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청송지역 농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충청북도 쌀 경영안정자금 인상 방침

-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는 쌀 경영안정자금을 현행 ha당 5만원에서 내년에는 7만원으로, 2018년에는 10만원까지 늘릴 방침임. 아울러 논 지력향상차원에서 벼짚을 절단해 가을갈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ha당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임
- 이는 7월 28일 28일 농민단체 대표, 8월 5일 RPC 및 쌀 가공 업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 아울러 친환경인증 농가가 사용하는 농자재에 대해서도 ha 당 14만원을 지원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 확대, 쌀눈이썩 도정시설 임대 지원, 통합RPC 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쌀유통 주체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임
- 그러나 이같은 충청북도의 계획은 상당한 액수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야 추진 가능한 것이어서 향후 예산담당 부서 및 의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큰 상태임. 충북도연합회를 포함한 관내 농민단체들은 직불금 단가 120만원으로 인상,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의 요구도 제시했음